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이수정(덕성여자대학교)

이 글은 인천 남동구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이다. 인천 남동구는 한국 사회의 구 단위에서는 북한 출신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특히 임대아파트가 집중된 논현동 일대는 북한 출신 주민들의 가시성이 두드러져 때때로 ‘작은 북한’이라고도 불린다. 한편 ‘작은 북한’은 남한의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 중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으로 거주하는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협상하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특히 ‘공간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은 구체적인 현장에서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형성된 사회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

* 이 글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진행 중인 한국 사회기반연구사업(SSK) “접촉지대와 남북한 마음체계의 통합”(NRF-2011-330-B00138) 연구 결과 중 일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글의 초안은 2012년 개최된 두 개의 학술대회에서 약간 다른 버전으로 발표되었다(이수정, “접촉지대 이야기: 경계의 재구성,”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창립기념세미나: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11.21; 이수정, “접촉지대, 민족지, 경계의 재구성: 작은 북한 이야기,” 북한이탈주민연구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아젠다: 인간안보, 공존, 통합의 원리와 실천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한국교육개발원 공동 학술대회, 2012.12.14).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북한 출신 주민, 북한이탈주민, 남한 출신 주민, 남한 주민, 임대 아파트, 접촉지대, 민족지, 문화번역, 갈등, 협상, 경계, 공간효과

1. 들어가며

이 글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남북한 출신의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생활세계를 분석한다.¹⁾ 이 지역은 북한 출신 주민의 가시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때때로 ‘작은 북한’이라고도 불린다. 실제 이 일대는 전국에서 북한 출신 주민이 가장 집중된 지역 중 하나이며, 따라서 관련 활동도 두드러진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작은 북한’은 북한 출신 주민들의 거주지가 몰려 있는 몇 개의 임대아파트 단지를 가리키지만, 이들이 가시화되는 주변 지역을 포괄하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는 ‘작은 북한’을 물리적 행정구역이나 주소지를 중심으로 엄격히 구획하기보다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임대아파트 단지 일대 북한 출신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 공

1) 이 글은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관계를 분석할 때에는 각각 ‘북한 출신 주민’ ‘남한 출신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남한으로 입국하기 전 제3국 체류 중인 북한 출신 인구에 대해서는 법률적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이나 사회적 용어인 ‘탈북자’를 맥락에 맞게 사용할 것이다. 용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이수정, “북한출신 주민 2만 명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반도 리포트』(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간'으로 느슨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데 '작은 북한'에서의 주요 행위자는 단지 북한 출신 주민만은 아니다. 이 공간을 특징짓는 또 다른 주요 행위자는 이곳에서 살거나 활동하고 있는 남한 출신 주민들이다. 사실 '작은 북한'은 북한 출신 주민보다 훨씬 많은 남한 출신 주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며 동시에 조선족, 귀국 사할린 동포 등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중국 한족 등 다양한 이주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현장이다.²⁾ 이곳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충돌하고 겹치고 어긋나며 삶을 직조한다. 이 글은 이 중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으로 거주하고 있는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협상하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특히 '공간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구체적인 현장에서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형성된 사회관계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2) 논현동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귀국 사할린 동포 집중 거주지도 있다. 2013년 7월, 한 언론에서 남동구청장은 외국인 노동자, 사할린 동포, 다문화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1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남동구를 '작은 지구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남동구는 '작은 지구촌'", 『인천일보』, 2013년 7월 2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719>.(검색일: 2013.10.29).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 이론적 배경: 접촉지대와 문화번역

이 글은 ‘작은 북한’을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접촉지대(contact zone)’ 중 하나로 분석한다. ‘접촉지대’는 역사, 지역, 문화, 이데올로기적 분리를 경험한 주체들이 “(대개의 경우) 고도로 비대칭적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서로 만나고 충돌하고 싸우는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이다”.³⁾ 이때 ‘접촉지대’는 상호작용하는 장소를 표현하는 기술적 개념인 동시에 필자의 이론적 관점을 담지한 개념이다. 즉, 이 공간은 다른 역사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접촉’하는 곳인 동시에 다른 자아, 문화, 공동체의 만남에서 배제와 포섭, 충돌과 소통, 갈등과 공존의 ‘역동성’이 교차하며, 새로운 ‘우리’ 및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만드는 또 다른 ‘정체성(identity)’을 배태하는 사회적 공간인 것이다. 공간은 빈 그릇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주조하는 틀이다. 즉 공간은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사회적 공간을 ‘접촉지대’로 개념화한 프랫(Mary Louise Pratt)은 이 개념을 ‘공동체(communitiy)’와 대비한다. 프랫에 따르면 공동체는 하나의 문화를 상상한다. 즉, 하나의 문화, 언어, 역사를 전제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역사와 배경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만남은 기본적으로 이질성을 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접촉지대로 바꾸어 살펴보면 상상되므로

3) Mary Louise Pratt,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Vol. 1991(1991), pp. 33~40.

은폐된 차이와 그 차이를 무화하는 권력관계가 드러난다.⁴⁾

흔치는 않지만 남북협상 및 회담 등의 남북한 접촉지대는 한반도 분단 이래 지속되어왔다. 탈냉전, 민주화 이후 이러한 접촉지대는 급증했다. 새로운 접촉지대의 형성에는 국제적 탈냉전과 남한의 대북 화해정책, 북한의 경제위기와 남북한 경제협력, 남한 내 북한 출신 주민의 증가 및 이들의 제3국으로의 재이주 등이 영향을 미쳤다. 남북한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면서 북한 내부와 북·중 경계 지역에 남북 경제·개발협력 지대가 만들어졌고, 남한과 해외에 북한 출신 사람들의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접촉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 접촉지대에서 오랫동안 분리된 채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담지해온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촉지대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미래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현장’이자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접촉지대가 한반도 미래의 거울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접촉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생적 경험은 남북 사회통합을 기획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⁵⁾ 특히 국내외의 다양한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같고 또 다른 경험을 하는지, 어떤 만남이 좀 더 긍정적인 관계를 구성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한 통합방안 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접촉지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이는 한국

4) Mary Louise Pratt, Ibid.; 이수정·이우영, “영국 뉴몰든 코리아타운 내 남한 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2014), 137~174쪽.

5) 이상의 접촉지대 관련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 한국 사회기반연구사업(SSK) “접촉지대와 남북한 마음체계의 통합”(NRF-2011-330-B00138)의 연구계획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사회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과 관련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남북관계는 전 세계의 경계선 중 가장 고정적이며 강력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분리장벽 중 하나인 휴전선을 경계로 대적하고 있는 두 정치체제의 관계로 상상되곤 한다. 이 상상에서 북한은 고정적이고, 단일하며, 폐쇄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지배 집단이 완전한 장악한 사회이다.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의 분화와 인민들의 역동성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북한 사회의 내적 단일성과 폐쇄성을 가정한 채 두 정치체 간의 ‘경쟁’과 ‘협상’의 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사람들 간의 접촉과 그 함의’에 대한 관심의 자리는 적을 수밖에 없다.

한편, 남과 북을 경쟁·적대하는 두 개의 분리된 집단으로 보는 시각은 명백하게 남과 북을 잇는 사회적 접촉의 지점들을 만들어내온 북한 출신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 출신 주민 관련 연구는 이들의 삶의 의미를 ‘탈북’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고정하고, 한국 사회·문화로의 적응 패러다임 중심으로 사고하는 냉전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 사회’와 그 문화를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일관되게 구조화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단일 구성물로 본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북한 출신 주민들의 행위자성을 탈북이라는 과거의 시점에 묶어둔 채 남한 사회에서는 일방적 ‘적응’의 과제만을 가진 수동적 존재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접촉시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의 경험을 남한 출신 주민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북한 출신 주민들의 행위자성에 주목하고 남한 출신 주민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형태들

을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⁶⁾

접촉지대로서의 ‘작은 북한’의 생성은 1차적으로 정치적·영토적 경계를 횡단하여 한국 사회로 들어온 북한 출신 주민들의 이주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 사회로의 이주에는 북한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어려움 등 북한 내부적 요소만큼이나, 북·중관계,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한국과의 국교 수립, 남북한의 비대칭성의 강화,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 정보화와 문화 교류 등의 글로벌 환경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접촉지대의 초기 형성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의 주거 정책과 이에 따른 주택 계급화(housing classes) 현상,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 특히 주거지원정책에 의한 ‘거주지 배정’ 정책이 결정적이었다.⁷⁾ 즉 ‘작은 북한’은 세계적 탈냉전과 지속되는 지역적(한반도) 냉전, 그리고 자본주의 주거정책의 교차점에서 발생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이다. 남북한의 다양한 접촉지대 중에서 ‘작은 북한’을 가능하게 한 이러한 역사적·공간적 특수성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조화한다. 이 공간을 가능하게 한 남북한의 비대칭성, 지역적 냉전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의 주택 계급화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조건 짓는 중요한 기제이다.

6) 이수정·양계민, “북한 출신 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 출신 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2013), 395~421쪽; 윤철기·양문수,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마음체계 통합 연구를 위한 시론,” 『현대북한연구』, 16권 2호(2013), 251~280쪽.

7) 주택의 소유 여부, 위치, 크기, 유형, 가격 등이 거주자의 사회적 신분을 가르는 사회를 주택 계급(housing classes)으로 구성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Peter Saunders,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Hutchinson, 1981), pp. 110~148;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서울: 이숲, 2009), 69쪽에서 재인용.

동시에 이 공간은 참여자들의 행위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적 공간이기도 하다.

‘접촉지대’ 관점은 이 공간에 참여하며 따라서 이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서로 다른 주체가 어떻게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지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언어, 행동양식, 가치관 등이 어떻게 번역되어 맥락화되고 의미를 갖는지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 공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 즉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의 주체로 바라보고, 번역의 과정에서 경계들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⁸⁾ 이를 위하여 필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경험적 현상을 기술하고,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권력의 문제, 그리고 담론 과정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때 정체성은 본질적이고 고정된 것이라기보다 다양한 권력과 담론 과정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⁹⁾

2) 연구 방법: 민족지적 현장연구

이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연구 방법은 민족지적 현장연구(ethnographic fieldwork)이다. 민족지적 현장연구는 인류학의 주된 연구 방법으로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삶의 현장에 참여하여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작업을 수행

8)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5), 41~62쪽.

9) Stuart Hall, “Who Needs ‘Identity’?” in Stuart Hall and Paul du Gay(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London, California, New Delhi: SAGE Publications, 1996), pp. 1~17.

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에 대한 참여 관찰과 인터뷰 등을 포괄하는 이 연구 방법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행위양식과 의미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일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연구 대상자들의 연구자에 대한 반응성을 줄이고, 라포(rapport) 형성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¹⁰⁾ 또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식과 실제 행위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를 파악하여 그 함의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민족지적 현장연구는 현장의 전반적 맥락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¹¹⁾

‘작은 북한’ 내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관계를 분석한 이 글은 이러한 장점을 가진 민족지적 현장연구에 기반을 둔다. 구체적으로,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보조원이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참여 관찰과 공식·비공식 인터뷰를 통해 작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기록하였고, 그 결과물인 현장 일지를 통해 필자와 일상적으로 소통하였다.¹²⁾ 또한 필자도 최소 주 1회 현장 방문을 통한 참여 관찰 및 비공식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막바지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현장을 찾아 참여 관찰 및 남북 출신 주민 각각 10명과의 공식 면접을 실시하였다.¹³⁾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남

10)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이란 연구 대상자가 연구자를 의식하여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율하는 경향을 말한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일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민족지적 현장연구는 이러한 반응성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이 용이해 좀 더 깊이 있는 자료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11) 이용숙 외,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일조각, 2012), 30~36, 115~123쪽.

12) 이 연구의 보조연구원으로 3개월간 ‘작은 북한’에 거주하며 충실한 자료와 성찰적 시각을 제공한 이재욱 님에게 감사드린다.

북한 주민들의 상호작용과 그 상호작용을 주민들이 어떻게 의미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민족지적 현장연구는 연구자의 몸을 도구로 한 매우 체험적인 연구 방법이다. 현장에서 연구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연구 자료가 된다. 이때의 연구자는 연구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순수하고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닌, 현실 속에서 특정한 사회적 위치와 입장을 가지고 연구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민족지적 현장연구를 통해 획득한 지식은 ‘상황적 지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⁴⁾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는 연구의 객관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특정 맥락에 ‘위치 지어진 사람’으로서의 연구자의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상호주관적 설득력’을 추구한다. ‘작은 북한’을 남북한 주민들이 비대칭적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접촉지대’로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과 ‘접촉지대’ 연구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미시적 관찰과 이해를 통한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필자의 입장이 현장연구의 결과물인 이 글에 반영되어 있다.

3. ‘작은 북한’의 공간적 특성

접촉지대 관점은 공간을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것이 아닌, 사회적 관계를 주조하는 힘이자 동시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구성되는 것

13) 남북 출신 주민의 자기 집단과 서로에 대한 인식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기획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글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수정·양계민, “북한 출신 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 출신 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14) 이용숙 외,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102~109쪽.

으로 인식하게 한다. 즉 공간은 다양한 행위 주체, 구조, 실천들이 결합하는 장이자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다층적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¹⁵⁾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작은 북한’이라는 접촉지대의 공간적 특성을 이 공간을 만드는 구조적 힘과 사회적 관계의 역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기획된 소수자 주거·생활공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대가 남북한 접촉지대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무렵이다. 양어장, 농원, 습지로 덮여 있던 남동구 일대 지역이 ‘택지개발 정책’에 의해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이중 일부분이 국민임대아파트로 분양되면서 남한 출신의 ‘무주택 서민’들과 이 무렵 하나원을 수료하고 지역사회로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웃으로 함께 살게 된 것이다.¹⁶⁾

택지개발 정책의 대상이 된 논현동에는 여러 개의 국민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세대주는 물론 주민등본상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들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전년도 도시 노동

15) Anthony Giddens,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Oxford: Basil Blackwells, 1987); Massey, Doreen, *Space, Place, and Gender*(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16) 인천 남동구는 구 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 출신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그중 신규택지개발지구인 논현 1, 2동이 집중 거주 지역이다. 남동구의 북한 출신 주민은 2012년 4월 말 1,380명이며 그중 논현 1, 2동에 1,166명이 거주하고 있다(남동구청 총무과 자료). 한편, 남동구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2012년 3월말 현재 49만 7,463명이며 그중 논현 1, 2동 거주 인구는 6만 5,511명으로 논현 1, 2동 거주 인구 중 북한 출신 주민 비율이 약 1.78%를 차지한다.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곧 임대아파트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소수자 주거 지역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모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늘 부족해서 경쟁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대기해야 하는 지역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56개월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¹⁷⁾ 대기 중인 사람이 1만 명을 넘어 서울시의 대기자 수보다 8배 정도 많다. 경쟁률이 높은 경우 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더 많이 소외받는 저소득층에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천의 임대아파트에는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소수자 중 소수자가 특히 많이 거주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현장 연구 과정에서 만난 ‘작은 북한’의 남한 출신 거주자는 소득원이 없는 노인 계층 등 단독 세대가 많았고, 스스로 “없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경우가 다수였다. 대체로 인천 일대에서 거주하다 논현동 일대가 택지 개발되면서 이주해왔다.

‘작은 북한’의 주요 거주자 그룹 중 하나인 북한 출신 주민은 임대아파트의 우선 배정 대상자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특별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수료 후 사회 편입 시 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립하는 공공건설 임대 주택 등에 특별 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으로서 주거지를 알선 받는다. 하나원 교육 중에 희망 거주 지역을 접수하면 하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에 임대주택 알선을 요청하여 북한 출신 주민이 사회에 편입하기 전까지 주택 배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¹⁸⁾ 하나원에서 임대아파트 배정 시 북한 출신 주민

17) “인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 56개월 걸려,” 경인방송 2012년 10월 7일, <http://blog.daum.net/itvfm907/662>(검색일: 2013.10.30).

대다수는 서울과 수도권을 선호한다. 특별 계층만 거주할 수 있는 평양 효과에 한국에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합쳐진 결과이다. 북한 출신 주민들의 수도권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수도권에 거주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의 분산 배치 정책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배치 비율은 배치 당시 배정 가능한 임대아파트 숫자에 따라 그때그때 변화한다. 2000년대 택지개발이 시작되어 2006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작은 북한’의 임대아파트 단지는 수도권인 테다 새아파트라는 장점이 보태져서 북한 출신 주민들이 매우 선호하는 거주지 중 하나이다. 2006년부터 북한 출신 주민들은 A, B, C, D라는 네 개의 임대아파트 단지에 배치되었고, 특히 A, B단지에 집중되어 있다.¹⁹⁾ 2010년대 들어서 빈집이 잘 생기지 않으면서 이 지역으로 새롭게 이주하는 북한 출신 주민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요즘은 거주자가 이사를 가서 빈집이 생길 경우 충원되는 정도이다.

남동구 논현동 일대가 새롭게 택지로 개발된 2006년 무렵만 해도 ‘허허벌판에 아파트들이 덩렁 서 있는 모양새’였다. 그 무렵 필자가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만난 한 북한 출신 주민이 “벌판에 내던져진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 꽤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후 급격한 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져, 2012년 현재는 “동네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원래 있었던 소래포구와 남동공단은 일터를, 논현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상가는 또 다른 일자리와 소비 공간을 제공한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필수적으로 따르는 주민자치센

18) 적절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경우는 북한 출신 주민이 하나원 출소 후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19) 임대아파트 단지 A는 6개동 801세대, B는 13개동 834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남북한 출신 주민들은 서너 가구 중 한 가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터,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과 종교시설 또한 설립되거나 확충되었다.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해서는 복지관 등도 확충되었다.

이에 더해, 2000년대 후반부터는 다양한 북한 출신 주민 지원기관이 생겨났다. 북한 출신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관한 높은 정치적·사회적 관심은 ‘탈북자 최대 거주지’인 이 지역에 수많은 관련 기관을 낳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소수자인 이 지역의 거주민에 더해 일터의 고용주와 노동자, 상인, 공공기관 직원, 북한 출신 주민 지원 전문가 및 활동가 등 북한 출신 주민과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많은 인구가 생겨났다. 북한 출신 주민들의 집중화는 ‘규모의 경제학’을 가능하게 하면서 또 다른 북한 출신들을 이 지역으로 유인하는 효과 또한 발생시키고 있다.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이 발달하면서 타 지역에 배치 받은 북한 출신 주민들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이곳을 활동의 근거지로 삼고 있다. 중국으로 연결되는 항구와 일본 등으로 연결되는 공항이 인접한 인천의 지리적 조건 또한 이들 국가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북한 출신 주민의 집중화에 기여한다. 실제 현장연구 과정에서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둔 많은 북한 출신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는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 인구가 공식적으로 파악된 인구수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렇듯, ‘작은 북한’은 한국 사회의 택지개발정책과 탈북자 지원정책이 결합되어 남북한 출신의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기획된 소수자 주거·생활공간이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주변 상점, 동네를 가로지르는 버스 등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이웃으로서 함께 하는 공간이다. 더불어,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각종 공공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상점들이 이 공간을 구성한다.

한편 기획된 소수자 주거·생활공간으로서의 작은 북한은 이 공간을 점유한 거주민들을 사회적으로 위축시킨다. ‘사는 곳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택 계급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에서 임대주택은 그 자체로 거주민들을 ‘하층민’으로 위치 짓는 가시화된 표식이기 때문이다.²⁰⁾ 작은 북한의 남한 출신 주민들은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시선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더불어 이들은 북한 출신 주민들이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이 이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북한 출신 주민들이 이곳에 집중 거주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이 되는 자신들의 삶터가 더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이러한 평가가 자신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임대주택과 거주자의 사회적 위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정보가 없던 북한 출신 주민들도 시간이 흘러 한국 사회의 문법을 익히면서 자신들의 거주지와 이웃 주민들의 낮은 사회적 위상을 파악하게 되고, 이는 북한 출신 주민 스스로의 처지와 이웃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이 이 공간이 사회적 소수자들의 공간이라는 점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2) 분절과 간섭의 공간

임대아파트에 이웃으로 거주하는 남북한 출신 주민들 간 일상적 상

20)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69쪽.

호작용은 많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공간이 분절과 폐쇄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전상인에 의하면 이웃과 교류나 협력 없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불편함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아파트는 그 자체로 자기완결성이 높은 주거공간이다. 따라서 아파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적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스럽고자 하는 현대인의 가치에 적절한 주거형태라고 볼 수 있다.²¹⁾ 일반적으로 “문 닫고 들어가면 사람이 사는지도 알 수 없는” 구조의 특성상 이웃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쉽지 않고 또 이를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출신 주민들에게 이러한 특징을 지닌 임대아파트는 우선 ‘충격’으로 다가온다. “동네사람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알던” 북한 사회와는 다른 낯선 사회, 텅 빈 아파트의 익명성과 폐쇄성은 이들을 한없이 위축시킨다. 이들의 공간 감각에 임대아파트는 매우 이물감이 드는 공간인 것이다. 한 북한 출신 주민은 이를 “현관문 닫고 앉아 있는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북한’은 이러한 아파트 특유의 폐쇄성과 단절성이 일정 정도 방해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우선 북한 출신 주민들이 이 공간을 전유하는 독특한 방식에서 기인한다.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낯센과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 출신 주민들은 단절의 아파트 공간을 선택적인 개방을 통해 공유한다. 하나원 동기나 같은 고향 출신끼리 무리 지어 다니며 낯선 사회에서의 불안과 외로움을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수다 떠는 것으로 해소한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남한살이에 대한 정보도 교환

21) 전상인, 위의 책, 85~97쪽.

한다. “어느 직장이 월급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수급을 더 받을 수 있다”, “직장 다니지 말고, 취업교육을 받아라. 수당도 나온다. 취업교육은 ○○가 좋다”, “○○○에서 얼마짜리 설문조사가 나왔다”, “○○○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를 준다”, “북한에 돈 보내려면 저 사람을 통해라”, “가족 데리고 오는 선은(혹은 호주에 가는 선은) ○○○가 제일 정확하다”는 등의 살아 있는 생활정보가 교환된다. 폐쇄된 아파트 공간을 넘나들며 그들 나름의 네트워크와 삶의 문법을 만들어간다. 이는 낯선 공간을 익숙한 방식으로 전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필자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모임들을 자주 목격하고 또 때로는 참여할 수 있었으며, 실제 현장연구와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의 경우 이러한 북한 출신 주민들의 아파트 내 네트워크에 많이 의존하였다. 반면, 남한 출신 주민들의 경우 거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교류도 활발하지 않아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북도식의 소형 아파트에서 북한 출신 주민들의 이러한 공간 전유 방식은, 한국 사회에서 흔치 않은 방식으로, 남한 출신 주민들에게 이들의 존재를 확인시킨다. 직접적인 인사를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벽 너머, 혹은 복도를 통해 들려오는 센 억양의 사투리와 웃음소리, 다투는 소리, 음식 냄새 등이 단절과 폐쇄의 공간을 넘어 남북한 출신 주민들은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는 “문을 잘 열지 않고”, 아파트를 자신(가족)만의 성으로 만들어 단절적 삶을 사는 것에 익숙한 남한 출신 주민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이다. 아파트가 가져다주는 고요함과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느낌이다.

‘작은 북한’에서 아파트 특유의 폐쇄성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이곳이 바로 사회보호 대상인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자 주요 정책적

배려 대상인 북한 출신 주민들의 집중 거주지라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정책을 펼쳐왔다. 북한 출신 주민들은 입국하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의 최우선적 대상이 된다.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새로운 시민이라는 이유 이외에도 남북한의 체제 경쟁적 요소가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근저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탈북자’라는 이들의 지위는 공식적 지원 이외 다양한 민간 지원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각종 관청, 임대주택 근처의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북한 출신 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관의 공무원과 활동가들이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여전히 이러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췄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작은 북한을 드나들며 북한 출신 주민들의 삶을 간접한다.

이 중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인 통반장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의 역할 중 하나가 시에서 추진하는 일을 주민에게 알리고 소소한 행정적인 잡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북한 출신 주민들도 이들에게 의존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대개 남쪽 주민인 통장이나 반장은 담당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에 이르는 북한 출신 주민들의 삶을 살핀다. 이들은 시에서 추진하는 일을 주민에게 알리고, 쓰레기봉투를 나눠주고, 생활보호대상자 도장도 찍어주며, 취학통지서를 갖다 주고, 적십자회비, 국민연금과 관련된 일 등을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 출신 주민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게 되고, 별이가 넉넉함에도 수급을 받는 사람,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 가족관계가 복잡한 사람들도 발견한다. 통반장들은 아파트의 폐쇄성과 익명성을 뚫고 북한 출신 주민

들의 일상에 관여하고 또 그러한 활동에서 취득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유통시키는 핵심 인물들인 것이다. 이렇듯 아파트 단지라는 ‘작은 북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기본적 폐쇄성과 북한 출신 주민들과 통반장 등의 실천에서 비롯되는 관여성의 결합 역시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

3) 이질적·적대적 문화와 주체의 불평등한 교차 공간

한편, 북한 출신 주민의 유입은 ‘작은 북한’이라는 별칭이 상징하듯이 지역의 성격을 60여 년 동안 분리되어 적대하고 있던 역사와 문화가 교차하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를 구축하면서, 서로 다른 시공간 감각과 감정성, 가치관과 의식,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을 생산해왔다. 예를 들어 남한 사회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와 센 노동강도, 절제된 감정 표현,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이며 물질주의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북한 사회는 이에 비해 느린 속도와 느슨한 노동강도, 솔직한 감정 표현, 집단주의적이고 관계중심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²²⁾ 언어와 몸짓, 패션 등도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물론 모든 개인이 이러한 문화적 문법을 똑같이 체화하고 있지는 않고, 북한 출신 주민의 경우 중국 등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습득한 경우도 상당수이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체화된 아비투스(habitus)는 몸의 전면적 체제전환을 쉽게 용인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출신 주민들이 아파트라는 폐쇄적인 공간을 ‘선택적 개방’이라는 나

22) 정향진,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제11집 1호(2005), 81~111쪽.

름의 방식으로 전유하며 살아가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집단주의적이고 관계중심적인 북한식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간 다른 억양의 언어, 몸짓, 패션 등도 구체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가시화된다. 따라서 ‘작은 북한’은 이질적 문화와 그 문화적 환경 속에서 구성된 서로 다른 주체의 교차 공간이 된다.

한편 이러한 만남이 평등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 출신 주민은 ‘소수자’이며 ‘타자’이다. 이들은 때로는 여전히 남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의 ‘대표자’로, 또 다른 경우는 ‘피해자’로 인식된다. 이는 분단 정치의 영향 때문이다. 분단 이후 치열한 정당성 경쟁을 펼친 남북한은 서로의 실체를 부정하며 교육과 언론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쏟아내 왔다. 동시에 남북한은 민족통일이라는 과제를 포기할 수 없었으므로 서로에 대해 사악하고 정당성 없는 ‘정권’ 내지는 ‘국가’와 그 피해자인 ‘일반 사람들’을 분리하는 재현 정책을 펼쳐왔다.²³⁾ 따라서 남북한 주민들은 상대방 ‘정권’에 대해서만큼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독립적 재현이 따로 있지 않았고 집단적으로 ‘정권의 피해자’로 상대 정권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모순적 이미지로 남아 있었다. 남한 사회에 들어와서 작은 북한에 거주하게 된 북한 출신 주민들은 소수자적 위치로 인해 주류인 남한 출신 주민들에 의해 그 존재 자체로 동정심과 안타까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의 이질적 (즉, ‘북한식’) 문화는 교정되어야만 할 부정적 잔재로 인식된다.²⁴⁾ 즉 북한 출신 주민 그 자체로는 수용과

23) 전효관,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지,” 『통일연구』, 제2권 2호(1998), 43~71쪽.

지원의 대상이지만, ‘북한식 문화, 즉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가진 주체는 비난받고 교정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출신 주민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언어를 스스로 점검하고 조심하며 최소한 일상에서는 북한적 특질들을 자원화하지 않는다.²⁵⁾ 스스로 북한이 표상화되는 것을 꺼리며,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남한식으로 이를 교정하려 한다. 드러나서 문제시되는 것은 습속화된, ‘교정 전의’ 문화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작은 북한’은 이질적·적대적 문화와 주체의 ‘불평등한’ 교차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4. 주요 갈등 양상

서로 다른 문화, 역사, 경험을 가진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일상에서 만나면서, 갈등과 협상은 일상화된다. 문화적 차이, 이해관계의 충돌, 정치적 입장의 차이까지 갈등과 협상의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동시에, 관계와 공간에 따라 갈등의 양상도 다양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갈등 양상을 원인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살펴본다. 분류된 원인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서로가 겹쳐서 갈등을 심화시키곤 한다. 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24) Soo-Jung Lee, “Education for Young North Korean Migrants: South Koreans’ Ambivalent ‘Others’ and the Challenges of Belonging,”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4 No. 1(2011).

25) 일상에서 북한적 표식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북한 출신 주민들이 북한적 특질들을 자원화하는 예외적 경우는 대체로 북한 사회의 ‘증언자’ 역할이 주어질 때이다. 북한 혹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의 대상이 되거나, 정치적·종교적 담론의 장에 증언자로 참여할 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

앞서도 언급했듯이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매우 다른 ‘국민’ 형성 전략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남과 북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습성을 지닌 주체로 형성되었다. 일상에서 이웃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종종 구별과 차별, 갈등의 근거가 된다. 우선 서로 다른 억양의 말, 화장법과 옷차림 등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서로를 알아차리고 구분 짓는 주요한 표식이다. 현장연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거리에서 남북한 출신 사람들을 구분하는 자기만의 비법을 이야기하곤 했다. 주로 북한 출신 주민의 센 억양, 독특한 화장법과 옷차림 등으로 표상되는 이러한 구분법은 남한 출신 주민에게는 ‘문화적 우월성’을 북한 출신 주민에게는 ‘아직 깨지 못함’ 이나 ‘민망함’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다. ‘공중도덕’과 관련한 서로 다른 문화적 코드는 대표적인 갈등의 요인이다. ‘소음’과 ‘쓰레기 분리수거’, ‘복도에 내 놓은 물건’ 등과 관련된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목격되고 또 언급된 것 중 하나이다.

남한 출신 주민들은 한국 사회의 문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북한 출신 주민들이 당혹스럽다. 많은 남한 출신 주민들은 북한 출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만드는 소음이 함께 생활하는 데 가장 힘든 점이라고 이야기했다. “저 아래서 10층의 사람을 소리 질러 불러. 누구 야~~~ 하고. 오밤중에……”, “밤새 아이를 혼내는 소리, 애가 우는 소리 때문에 시험공부를 못했어요”, “맨날 모여서 고기 구워 먹어. 창문, 문, 다 열어놓고…… 시끄러운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는 것들이 남한 출신 주민들의 주요 하소연 내용이었다. 북한 출신 주민들에게 고층에 사는 친구를 아래서 육성으로 부르는 일은 매우 일상적인

장면이다. 엘리베이터나 휴대전화가 드문 북한에서 하던 방식이기 때문이다. 맛있는 것이 있을 때 모여서 나눠 먹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낫선 땅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아이의 그릇된 행동을 큰 소리로 야단치며 혼내는 일도 매우 당연한 일이다. “잘못은 그때그때 딱 잡아서 교양하는” 북한식 가정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북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행위양식이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동도덕을 어기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문화화가 덜 된 “미개한” 행위가 된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복도에 유모차를 두는 문제 등도 지속적인 갈등거리이다. 북한 출신 주민들은 왜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해야 하는지, 공용 공간인 복도에 왜 개인 소유품을 두면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남한 출신 주민들은 북한 출신 주민들이 왜 그 간단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지 의아스럽다.

이러한 차이가 시뮬거리가 되어 갈등이 표면화되면 서로 다른 대응태세로 말미암아 문제가 증폭된다. 남한 출신 주민들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자 하지만, 북한 출신 주민들은 “끝을 보는” 경향이 있다. 남한 출신 주민들은 갈등이 생기면 억세게 달려드는 북한 출신 주민들이 무섭기도 하다. 남쪽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느낀다. 북한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드세고 험한가 자문하다 억압적인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다 와서 그런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린다. 북한 출신 주민들은 별것 아닌 일로 경찰부터 부르는 남한 출신 주민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이 보기에 남한 출신 주민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이해 타산적이며, 한바탕 싸우고서 화해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 만만하게 보이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일 듯해서 “북한 사람들이 그리 쉽지 않다”는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설적인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운 북한 출신 주민들과 절제된 감정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서로 다른 감정성을 가진 남한 출신 주민들 간의 문화 차이는 갈등을 극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향진은 탈북 청소년의 감정성에 관한 연구에서 탈북청소년들의 극적인 감정경험과 직설적 감정 표현은 남한과 다른 정치, 경제적 원리를 바탕으로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감정규범에서 기인하므로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²⁶⁾ 남북한 감정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작은 북한’에서도 매우 자주 관찰되곤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맥락에서의 문화적 차이는 ‘작은 북한’에서 남북한 출신 주민 간의 일상적 갈등의 주요 요소이다.

2) 남북의 정치적 긴장과 위계에서 기인한 갈등

문화적 차이는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처한 위계적 관계에 의해 프레임(frame)될 때 폭발력이 크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가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는데, 남한이라는 공간적 위치는 이러한 다이내믹에서 북한 출신 주민들을 소수자로 위치시킨다.

북한 출신 주민들은 모르는 외래어에 주눅이 들고 남쪽 이웃들이 “텃세를 부리”고, 남한식 방식에 서툰 북한 출신 주민을 “속이고”, “못시는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듯”하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민감해진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임대주택 이웃 간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

26) 정향진,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은 아니다. 그보다는 더 광범위한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이 강력한 레퍼런스(reference)가 된다. 직장을 구하려다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 일터에서의 차별 경험 등이 그것이다. 현장연구에서 만난 많은 북한 출신 주민들이 구직 과정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점을 밝혔다가 일자리를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일터에서 경험한 처절한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노를 표시하였다.

북한 출신 주민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집단 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강화된다. 서로 간의 일상적 네트워크 속에서 차별 경험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는 이러한 내러티브들이 북한 출신 주민들을 남한 출신 주민들의 부당한 차별 대상으로서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는 공동체로 엮곤 한다.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북한 출신 주민을 보고 ‘북한놈들, 세금 도둑놈들’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A, B 단지만 빈집이 많은데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남한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현장연구 과정에서 비슷비슷한 버전으로 많은 북한 출신 주민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웃 간의 사소한 오해와 갈등은 북한 출신 주민들의 감정을 폭발시키곤 한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근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북한 출신 주민들은 남한 출신 주민들의 ‘호기심’도 부담스럽다. 호기심은 분단 구조 속에서 북한 출신 주민들을 타자로 위치 짓고, 결정적 순간에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와 결합되어 적대적 언행으로 바뀐다. 남북 사이 긴장이라도 조성되면, 어김없이 화살이 날아온다.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가 절정이었다. 현장연구 과정에서 만난 북한 출신 주민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친구, 남동공단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천안함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한 북한 출신 주민의 남측 동료

는 이틀 내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누가 한 것 같으냐”는 질문을 반복했다. “내가 국정원인가. 잘 모르겠다. 북한 밖에 더 있겠냐?” 대답하고선 좀 비겁한 것 같았다.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는지”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속상해서 퇴근 후 술을 잔뜩 마시고 이튿날 가까스로 출근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또 물었다. “잘 생각해봤냐? 누가 했다고 생각하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폭발했다. “왜 내게 그딴 걸 자꾸 묻나? 도대체 뭘 바라는 것이냐?” 대판 싸우고 직장을 나왔다. 또 다른 이는 이웃이기도 한 직장 상사가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한바탕 설교를 늘어놓는 바람에 크게 다뤘다. “세금 가지고 도와주는데 그 따위 일을 벌인다”고 핀잔하는데 목적어와 주어가 모호했다. “세금으로 누굴 도와주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얘길 하는가?” 안 그래도 세금 낭비 타령을 늘어놓는 남쪽 사람들이 불편했는데, 북한의 부정적 행태를 자신과 연결시키는 상황에 분노가 폭발했다. “너만 세금 내니? 너 세금 몇 전 내길래 그런 소릴 하는가?” 대판 퍼부어 주고 직장을 그만 뒀다. 이들은 “공장에서 북한 출신 주민은 외국인 노동자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느낀다.

꼭 이렇게 직접적인 충돌이 아닌 경우에도, 남북한의 갈등은 북한 출신 주민들의 일상에 긴장을 조성한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등 남한에서 상당히 성공하였다고 평가되는 한 북한 출신 주민은 남북한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탄 버스 안에서 “북한 빨갱이놈들 싸그리 죽여버려야 한다”는 호기로운 남한 출신 주민의 얘기에 북에 있는 ‘빨갱이’ 아버지를 떠올리고 마음이 한없이 착잡해졌고,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진짜 친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큰 장벽이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고향이 그림고, 가족들이 걱정되고 그런 것이 김일성이 김정 일이에 대한 충성이 아닌데” 남한 사람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남한 출신 주민들은 쉽게 화를 내고 험악한 방식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북한 출신 주민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불편하다. 호기심에 북한에 대해 물어보면 쉽게 역정을 내고 한번 화가 나면 “갈 데까지 간다”. 때로는 이러한 행동이 “빨간 물이 덜 빠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 특히 노인 세대들은 북한을 비판하는 얘기를 할 때 선뜻 동조하지 않는 북한 출신 주민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고통을 겪고 ‘탈북’해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증오심이 확실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남북한 간 갈등이 표면화될 때 “입장이 애매모호한 듯”하다. 한 남한 출신 주민은 “북한 욕을 하면 [북한 출신 주민들의] 눈꼬리가 올라간다”고 하였다. 북한의 가족들과도 계속 연락을 하는 듯하고 “(정치적으로) 누구 편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전쟁이면 총부리 어디로 겨눌지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도와주는 일은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분단이 낳은 이분법적 사고의 영향이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북한 출신 주민에로의 전이는 북한 출신 주민들 내부의 협력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원 동기나 고향 친구, 단체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가 아닌 다른 북한 출신 주민은 경계심을 갖고 대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자신의 탈북 사실이 북한에 알려지고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북한 출신 주민에 대한 집합적 표상이 긍정적이지 못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²⁷⁾ 분단 정치는 이렇듯 ‘작은 북한’의 일상에서 구현되어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3) 정부정책과 자원에 대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갈등

문화적 차이 및 정치적 긴장과 더불어 주요하게 ‘작은 북한’의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는 정부정책과 자원에 대한 경쟁이다. 이는 ‘작은 북한’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집중 거주지임에서 비롯되는 바 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출신 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집중적 정책지원의 대상이 된다. 한국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 이외에도 이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 통합의 과정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혹은 ‘먼저 온 미래’로 의미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연구 과정에서 이들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정책 이외에도 수많은 민·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한정된 북한 출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지원들은 때로는 ‘경쟁’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각 기관들이 참여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 참여자에 대한 경품이나 선물 등도 등장을 하고, 북한 출신 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 중 당장 더 나은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을 ‘쇼핑’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렇듯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 관 지원활동가들의 존재를 통해서, 정책전달자인 통반장을

27) 정병호는 서울 양천구의 북한 출신 주민 거주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른 이주민들이 활성화된 다문화 공간을 형성하는 데 반해 북한 출신 주민들의 커뮤니티의 경우 잘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그 이유로 남북한의 냉전적 환경을 든다. 정병호,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 서울 양천구의 탈북 이주민 거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2년도 학술대회 자료집』(한국문화인류학회, 2012); 정병호, “냉전 정치와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 『현대북한연구』, 17권 1호(2014), 49~100쪽.

통해서, 아이를 같은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이웃의 목격담을 통해서 남한 출신 주민들에게 알려진다. 북한 출신 주민들의 움직임과 대화, 가구에 전달되는 물건 등이 소문으로 이어지고, 남한 출신 주민 사이에 공유된다.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회경제적 소수자인 남한 출신 이웃들은 박탈감을 느낀다. 북한 출신 주민들이 이러한 지원을 “부당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같고 정부가 이를 조장한다는 느낌이 든다. 남한 출신 주민들은 이웃 북한 출신 주민이 잦은 이직을 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고 이는 북한에서 배운 나쁜 습관 탓도 있지만 남쪽 정부가 너무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않는 북한 출신 주민들이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직업교육을 받거나 “깎가지 혜택을 받으며 무위도식하는” 장면을 목격하면 “내가 낸 세금을 왜 저렇게 쓰나 억울”하다. “남한의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평생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을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다” 싶고 정부가 “버릇을 잘못 들이는 것 같다”.

북한 출신 주민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은 통반장들은 특히 자원 분배 이슈에 민감하다. 정부 지원 자격 요건에 민감해지고 이를 어기는 경우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 싶은 북한 출신 주민들과 갈등이 있다. “무조건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 얼토당토않게 화부터 내는 사람에게 분통이 터지”고 “새터민 때문에 이 일 못 해 먹겠다”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특히 스스로도 저소득층인 이들은 부정수급을 하는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반감이 크다. “양문 냉장고 사다 놓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며 주말마다 회를 사서 잔치를 하”고, 아프다고 수급을 받으면서 화려한 차림으로 외출을 하는 북한 출신 ‘젊은 사람’들에 “돌보지 않는 아들 하나 있다고 수급이

썰린” “우리도 좀 도와 달라” 하소연하는 남한 출신 할머니가 대비된다. 만날 때마다 “재네들한테는 왜 저렇게 뭘 많이 줘. 우리도 좀 도와 줘” 하소연한다는 할머니의 말을 전하며 “다 우리 세금인데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한 통장이 전한 사례는 자원 분배와 관련된 갈등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현장연구를 하기 한 해 전 설 명절, 북한 출신 주민들이 각종 관공서 및 지원단체에서 받은 선물을 쟁여 두었다가 상해서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아깝게 여긴 이웃 할머니들이 이들이 버린 떡국 떡을 먹으려고 주워서 곰팡이를 가려내는 장면을 본 통장은 분노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상황을 보고하고 “다 버리는데 왜 자꾸 주느냐”고 항의했다. 그 결과, 이후 주민센터 차원에서는 따로 명절선물을 하지 않게 되었다.

북한 출신 주민들은 남한 출신 이웃들이 자신들이 받는 정책적 혜택을 감시하고 시기하는 듯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남한 사회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자신들인데 좀 도움을 받으면 어쩐가, 기왕에 있는 지원 정책인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왜 잘못인가 반문하지만, 가능하면 자신들의 삶과 정부 혜택을 숨기고자 한다. 그러나 각종 정책전달자이자 때때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관련 증명서에 사인(sign)을 받아야 하는 통반장에게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들에게 통반장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자 동시에 통제·감시자인 ‘인민반장’을 연상케 한다.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정부정책과 자원에 대한 경쟁은 이렇듯 ‘작은 북한’의 주요한 갈등 요소이다.

5. 문화 번역과 경계의 (재)구성

일상의 소소한 접촉이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일부 남북 출신 주민들은 음식을 나눠 먹고 마실을 다니며 신뢰를 쌓아나간다. 남한 사람, 혹은 북한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개별성’에 대한 인식도 하게 된다. 비난하다가도 “저기 애들도 다 이빠해야 한다. 나중에 머느리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남북 출신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갈등이 지배적인 상황이다.²⁸⁾ 앞서 논의한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 자원을 둘러싼 경쟁, 분단 정치로 인한 남북한 간의 숨은 적대감 등이 갈등을 증폭시킨다. 갈등이 생기면 갈등의 당사자들은 해석의 틀을 찾는다. 낯선 상대방의 언어, 행위, 가치관 등을 번역해서 맥락화하여 해석하려 애쓴다. 차이를 발견하고 번역하는 문화번역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관계와 사회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이 과정은 차별적으로 진행된다. 한국 사회에 위치한 남북한 접촉지대이자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의 주거지라는 공간적 특징을 가진 ‘작은 북한’에서 각기 다른 위치성을 가진 남북한 출신의 주민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화번역을 수행함으로써 자신과 타자를 규정하고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 사이의 경계가 (재)구성된다.

28) 현장연구 과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현동의 남한 출신 주민들은 내집단에 비해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해서 인지, 정서적 측면에서의 태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 등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강했다. 그러나 접촉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북한 출신 주민들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사회적 거리감도 적으며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차’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졌다. 이수정·양계민, “북한 출신 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 출신 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1) 남한 출신 주민

한국 사회에서 남북한 출신 주민들 간의 일반적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 다수자이고 주류인 대부분의 남한 출신 주민들의 삶에 북한 출신 주민들은 큰 변수가 아니다. 갈등이 생기면 화도 내고 이런 저런 해석도 해보지만, 북한 출신 주민 관련 지원활동가 등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협상해야 하거나 인정투쟁에 돌입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와 닿지는 않는다. 따라서 북한 출신 주민들에게서 발견하는 부정적 요소를 북한적 특징으로 문화화하고 비도덕성을 비난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로 연민하며 위계화하고 타자화하는 방식의 해석들을 채택한다. 많은 경우, 북한 출신 주민들의 내적 다양성과 초국적 경험이나 관계에 대해 고려하기보다는, 이들을 집단적으로 열등한 ‘북한’ 혹은 ‘사회주의’와 관련된 방식으로 경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도 문화적 특수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며, ‘타자’로서의 북한 출신 주민에 대비하여 보편적 자아라는 특권적 위치를 주장한다.

‘작은 북한’의 남한 출신 주민들에게서도 이러한 경향이 발견된다. 북한 출신 주민을 타자화하고 이들의 부정적 요소를 ‘북한적 특징’으로 문화화하여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소수자라는 위치, 북한 출신 주민들과 거주지를 함께한다는 사실이 ‘작은 북한’의 남한 출신 주민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한다. 같은 사회경제적 소수자로서 어려운 경험을 한 북한 출신 주민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하고, 이들이 받는 혜택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웃으로서도 복합적 마음을 가진다. 생활의 근접성에서 오는

친근함과 개별성에 대한 이해에 일상적 갈등이 교차한다. 이에 더해, 북한 출신 주민들과 이웃이라는 사실은 남한 출신 주민들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준다. 북한 출신 주민들의 존재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시선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위험하고 실패한 북한의 표상인 ‘북한 출신 주민’과 이웃으로 산다는 것은 임대주택 거주 자체가 ‘패배자’의 표상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더 큰 낙인화의 요인이 된다. ‘작은 북한’의 남한 출신 주민들이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경계 짓기’를 하는 데에는, 분단문화와 일상에서의 갈등, 자원에 대한 경쟁과 박탈감 이외에도 이렇듯 스스로의 정체성 문제가 걸려 있다. 즉 ‘작은 북한’의 남한 출신 주민들의 ‘문화번역’에는 남북한이라는 경계 이외에도 계층이라는 경계가 작동한다. 북한 출신 주민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계층으로 인지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이곳에서 남한 출신 주민들의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행동, 그리고 평가에 영향을 준다.

2) 북한 출신 주민

북한 출신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훨씬 복잡한 정체성 협상 과정을 겪는다. 끊임없는 타자화와 평가절하를 겪으며, 존재의 가치 확보를 위한 인정투쟁에 돌입한다. 한민족이자 적대국가 출신의 소수자로서 스스로의 자존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협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접촉지대에서 대개의 소수자들이 그러하듯 기본적으로 남한 출신 주민들의 언설이나 행위에 ‘반응적’이다.²⁹⁾

북한 출신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남한의 문법에 동의하고 헌신하면

서 성실성이나 세련됨 등 남한 사회에서 장점으로 평가되는 자질들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말투나 옷차림 등을 고쳐서 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애도 써 본다. 이러한 노력은 대개 남한 출신 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북한 사회와 북한 출신 주민 집단을 비판하면서 이들에게서 스스로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북한 사회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강조하는 ‘피해자론’, “우리 북한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나는 안 그래요”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예외론’이 대표적이다. 외부자인 남쪽의 문법과 시각에 스스로를 일치시키면서 고향인 북한 및 동료 북한 주민 집단과의 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러한 노력은 ‘작은 북한’으로부터의 이주라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장연구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고” “인식이 좋지 못해”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이주하거나 이주를 기획하는 북한 출신 주민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절의 시도가 성공적인 경우는 많지 않다. 우선 ‘남한화’가 기대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말투나 옷차림, 사고방식과 태도 등을 고치려는 노력은 오히려 더 어색한 말투와 옷차림, 사고방식과 태도로 이어지기 일쑤이다. 이들에게 남한적 상징체계를 번역하여 체화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예외화의 노력도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개별자’로서 남한의 이웃들과 교류하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호명에서 자유롭지 않다. 게다가 정책지원 및 연구의 대상으로 스스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자원화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각종 지원과 혜택에 대한 남한 출신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힘들었던 경험

29) Mary Louise Pratt, “Arts of the Contact Zone,” p. 35.

과 특별한 처지를 호소해야 한다. 한 북한 출신 주민의 말처럼 “애써 봐도 우리는 여기서 북한 사람”인 것이다.

이들이 스스로 북한과의 관련성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남한화’의 제한성을 가져온다. 이는 이들이 북한정치 시스템이나 지배 집단을 긍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긴 삶의 기억이 있고 가족이 살고 있는 북한 사회를 남한 사람들처럼 쉽게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빨갱이들 다 죽여버려야 해”라는 남한 출신 이웃의 일갈에 즉각 “북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하는 염려가 되더라는 한 북한 출신 주민의 이야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출신 주민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내가 북한 있을 때 본 사람들은 다 얼마나 순수한데, 여기 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맞나 싫어요” 하고 대응하는 사례 등은 분단된 국가의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넘어온 이들이 갖는 사회적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잘 드러낸다.

이러한 어려움은 때때로 북한 출신 주민들이 남한 ‘자본주의’ 사회의 각박함과 피곤함, 남한 사람들의 이기심과 위선을 지적하며 느낌과 여유로움, 공동체성, 순박함, 솔직함, 통일에 대한 열망 등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와 북한 (출신) 주민들의 장점을 드러내고, 일부 동료 북한 출신 주민과의 연대를 돈독히 하는 행위의 기반이 된다.

‘작은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주민들의 경계만들기 과정에서 흥미로운 또 다른 측면은 이들의 남한 출신 이웃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 또한 상당히 ‘계층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남한 출신 주민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적 “너그럽고 세련된” 중상층 계층과의 연대감을 표현하며 자신들과 갈등관계에 있는 “무지하고” “여유 없는” 이웃 남한 출신 주민들과 차별화한다. 북한 출신 주민들은 ‘작은 북한’

이웃들의 각박함이 “경제적 하층민”의 특징이라고 해석한다. 자신들이 다른 장에서 만나는 지원활동가, 성직자, 학자 등 “있고 배운 사람들”은 “마음이 넓고 차원이 높는데” 이웃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남한 출신 이웃들에 대한 북한 출신 주민들의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이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적 담론과 시각을 차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임대아파트나 공장에서 만나는 비슷한 사회경제적 처지의 이웃들인 남한 출신 주민들이 가지기 어려운 다른 계층과의 접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 접촉은 많은 경우 ‘북한 출신 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특별한 위치로 인해 생겨난 것들이다. ‘북한 출신 주민’ 혹은 ‘통일’ 관련 사업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접촉의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북한 출신 주민들에게 관대하다. 일상을 나누는 공동체의 형성이 난망한 가운데 자주 부딪치고 갈등하며 자원을 두고 다투는 이웃보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좋은 얼굴로 만나는 ‘자원이 많은’ 이들에게 북한 출신 주민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점유하고 있는 사회적 공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친근감이 일상의 연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선망과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논의한 북한 출신 주민들의 다양한 경계만들기 혹은 지우기의 실천은 대개 한 개인에게서 복수로, 국면적으로,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갈등적이고 모순적인, 중층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렇듯 북한 출신 주민들이 새롭게 구성하는 국면적·중층적 정체성은 남북이 만들어 놓은 경계와 그 냉전적 성격에 크게 영향 받지만 동시에 이를 지우고 밀어내기도 한다. 중층적, 혼종적 존재방식 자체로 남한 사회의 지배적 문법을 깨뜨리기도 하고, 남북 당국에서 모두 금지

하고 있는 ‘비법’의 영역에서 북녘의 가족들과 은밀하게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혹은 제3국으로의 재이주를 감행함으로써 접촉지대의 경계를 확장하고 그 성격을 변환시키고 있다.

6. 나가며

북한 출신 주민들의 이주와 이로 인한 남한 내에서의 남북 접촉지대의 형성은 분명 분단 지형을 바꿔 놓고 있다. 북한에서의 삶의 기억을 가지고 중국과 제3국을 횡단하여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들은 그 존재 자체로 남한 사회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이들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법률과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관련 조직과 인력들이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시스템과 상징들이 점검되고 수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의 유입은 이전까지 상상속의 적대적 타자로 존재하던 이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고 갈등하고 협상하는 다양한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 경계들이 새롭게 구성되고 정체성이 협상된다. 한편 이러한 현장들은 ‘장소성’을 가진다. 공간적 특징에 따라 관계와 경계, 그리고 정체성이 협상되는 양상이 차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출신의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작은 북한’에서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상호작용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이 연구는 남북한 출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냉전·탈냉전 이슈,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계층적 요소에도 영향 받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서로의 의미와 행위를 읽어내는 ‘문화번역’의 과정, 그

과정에서 경계를 구성하는 방식이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차별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다른 공간적 특징을 가진 다양한 접촉지대 사례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남북한 사회통합과 관련된 어떤 함의를 갖는지 맥락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6월 22일 / 수정: 6월 27일 / 채택: 6월 30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5).

이용숙 외,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일조각, 2012).

2) 논문

윤철기·양문수,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시대 연구: 마음체계 통합 연구를 위한 시론,” 『현대북한연구』, 16권 2호(2013).

이수정, “북한출신 주민 2만 명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반도 리포트』(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이수정·양계민, “북한 출신 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 출신 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2013).

이수정·이우영, “영국 뉴몰든 코리아타운 내 남한 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2014).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서울: 이숲, 2009).

전효관,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지,” 『통일연구』, 제2권 2호(1998).

정병호,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 서울 양천구의 탈북 이주민 거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2년도 학술대회 자료집』(한국문화인류학회, 2012).

_____, “냉전 정치와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 『현대북한연구』, 17권 1호(2014).

정향진,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제11집 1호(2005).

Soo-Jung Lee, “Education for Young North Korean Migrants: South Koreans’ Ambivalent ‘Others’ and the Challenges of Belonging,”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4, No. 1(2011).

3) 기타 자료

“인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 56개월 걸려,” 『경인방송』, 2012년 10월 7일.

<http://blog.daum.net/itvfm907/662> (검색일: 2013.10.30).

“남동구는 ‘작은 지구촌,’” 『인천일보』, 2013년 7월 2일.<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719> (검색일: 2013.10.29).

2. 국외 자료

1) 단행본

Giddens, Anthony,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Oxford: Basil Blackwells, 1987).

Massey, Doreen, *Space, Place, and Gender*(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Saunders, Peter,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Hutchinson, 1981).

2) 논문

Hall, Stuart, “Who Needs ‘Identity’?” in Stuart Hall and Paul du Gay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London, California, New Delhi: SAGE Publications, 1996).

Pratt, Mary Louise,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Vol. 1991(1991).

Contact Zone and (Re)construction of Borders: Conflicts and Negotiations of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Migrants Who are Co-residing at a Public Rental Apartment Complex

Lee, Soo-Jung(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is a short ‘ethnography’ on ‘everyday life’ that is constituted by interactions between North Korean immigrants and South Korean residents in Nonhyon-Dong, Namdong-gu, Incheon where many North Korean immigrants co-reside with native South Koreans at a public rental apartment complex. Namdong-gu is the area where the most North Korean immigrant residents reside on the ‘gu’ level and a public rental apartment complex of Nonhyon-Dong is the area where the visibility of North Korean immigrants is most salient. This paper examines contexts of contacts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migrant residents of this apartment complex and aspects of conflicts and negotiations. In the process, it focuses on the “spatial effects” of these interactions. By examining interactions and social

relations of South-North Korean people in a specific social space, this paper provides useful data to forecast diverse social issues that are likely to happen in the process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and to prepare for alternatives for those issues.

Keywords: North Korean immigrants, South Korean residents, public rental apartment, contact zone, ethnography, cultural interpretation, conflict, negotiation, border, spatial effects.